

## 오피니언

## 월/요/광/장

박선정



연말이 되면 공연들이 넘친다. 지역의 공연 뿐만 아니라 유명 뮤지컬이나 콘서트도 전국투어공연으로 광주를 찾는다. 부지런히 밤품을 팔면서 공연을 보는데, 보면 볼수록 자꾸 미궁 속으로 빠지는 느낌이다. 그래서 지난해 여름 한 철 힘들리며 읽었던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서두 부분이 자꾸 떠오른다.

니체는 정신의 자기변화를 3단계로 설명한다. 낙타에서 사자로,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서 어린아이의 정신을 듣는다. '낙타'로 비유되는 정신은 아무런 반성없이 일체의 사회적 관습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정신이다. 마치 낙타가 무릎을 끌고 침이 가득 실리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역 공연단체의 작품을 보면서 자꾸 이 낙타의 이미지가 오버랩되는 것은 어떤 연유일까. 사자의 정신처럼 자유정신의 정신이나 어린아이의 정신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가치의 창조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

지난날의 굳은 습관을 탐습하는 단계인 낙타의 정신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과거

의 공연이나 지금의 공연이나 차별성이 없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감동과 예술을 살리지 않은 공연이나 출연진들의 몸짓 하나, 눈빛 하나에서도 프로정신을 느끼기 어렵다. 대본, 무대 연출, 안무, 조명 디자인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무슨 이유를 불이더라도 공연의 책임은 제작스텝과 출연진에 있다. 요즈음 '국악계의 프리미돈나'라는 별칭으로 상종가를 올리고 있는 박애리의 경우를 보면 예술가는 어떻게 단련되는가를 염불 수 있다.

복포 출신 박애리는 국립창극단에서 안숙선 이후 30년만에 배출된 '여자 명창'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그녀는 1990년 국립창극단에 입단할 때 해도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성실함과 끈질긴 노력을 통해 서서히 실력을 인정받게 된다.

하루에 무려 100가지 이상의 지적사항

## 예술가는 어떻게 단련되는가

사정이 이러한데도 유료관객을 확보한다는 것은 여행을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혹자는 시립예술단 공연때 문예회관 대극장의 텅빈 초대석을 예로 들면서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의 책임론을 거론한다.

또는 객관적 비평문화가 사라지고 학연으로 얹힌 운정주의만 남은 우물안 개구리식 공연환경이 경쟁력을 실종시킨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물론 공연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열악한 예산지원이나 전문인력 부재를 탓할 것이다.

을 꼼꼼히 메모하면서 밤낮없이 연습에 몰두했다고 한다. 소리공부 뿐만 아니라 연기와 무용까지 넘나들면서 만능 멀티플레이어로 성장했다. 마침내 2001년 국립극장 최초의 총체극 '우루왕'에서 주인공인 바리公主역을 차지하게 되고 세계 순회공연을 통해 진가를 더욱 드러냈다. 그러나 그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국악과 비보이의 만남이자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 중이다.

오늘날 현존하는 독보적 경영자술가로 평가받는 말콤 글래드웰은 자기 분야에서

최소한 1만 시간동안 노력한다면 누구나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말한다. 1만 시간은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3시간씩 연습한다고 했을 때 10년을 투자해야 하는 긴 시간이다.

그러나 오늘날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이 '1만 시간의 법칙'을 우직하게 실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예술인이 매너리즘에 빠져 치열함을 상실했을 때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 공연은 피나는 노력과 성장을 한 자만이 정상에 설 수 있다.

마침 지역 연극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시립극단 재창단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시립극단은 1983년에 지역극단으로서는 전국 최초로 창단되었지만 내분으로 인해 5년만에 해체되었다. 단원들은 뿐뿐이 흩어지고 이후 광주연극계는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된다. 문화수도를 자처하는 예향의 도시에 시립극단 없는 부끄러운 상황이 23년 동안 지속된 셈이다.

그러나 이제 다시 기회가 왔다. 시립극단 재창단은 명성 높았던 광주연극의 자존심의 부활이자 반ين한 광주공연을 되살릴 무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부활의 바탕에 니체가 말한 '낙타의 정신'이 깔려 있다면 기회는 다시 위기가 될 것이다. 어느 쪽이 될 것인가는 운전히 광주연극인들의 뜻이다.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법조칼럼



최정희

## 피해자를 위한 변호

기 위한 법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 소송법은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많은 범죄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고, 경찰이나 검찰, 법원 등의 형사사법기관은 이를 준수하고 있다. 범죄자는 변호인을 선임해 자신의 양을 밟힐 수 있고,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다. 범죄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국가는 피해자를 포함한 선량한 일반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범죄자를 위해 국선변호인도 선임을 해 준다.

그러나 범죄 피해자는 예기치 못하였던 범죄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 기회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 인권이 모두 침해당하고 극도의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로부터 관심과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신체나 재산상 침해를 입은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두려움을 느끼거나 심한 경우 대인관계를 기피하거나 우울증 등의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피해자는 형사소송 절차상 수사기록과 범죄자의 진술 부분을 열람하여 범죄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지 그리고 범죄자가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등 신상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대리인을 선임해 재판 과정에 참여하기도 쉽지 않다. 이와 같이 형사소송절차상 검사와 피고인 위주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실제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심리하는 대상이거나 재판결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의한 존재'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1차 피해의 고통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받아야 한다. 특히 범죄자가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합의를 시도할 경우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두려움을 느끼거나 심한 경우 대인관계를 기피하거나 우울증 등의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피해자는 형사소송 절차상 수사기록과 범죄자의 진술 부분을 열람하여 범죄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지 그리고 범죄자가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등 신상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대리인을 선임해 재판 과정에 참여하기도 쉽지 않다. 이와 같이 형사소송절차상 검사와 피고인 위주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실제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심리하는 대상이거나 재판결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의한 존재'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1차 피해의 고통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받아야 한다. 특히 범죄자가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합의를 시도할 경우

유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거나 피해자를 연락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범죄의 불안에 떨어야 한다. 그리고 범죄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자와 대면을 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는 언론의 구체적인 범죄 보도로 인한 사회로부터의 3차 피해 등으로 계속적인 범죄의 후유증에 시달려야 한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개명을 하거나 이사를 해야 하는 또 다른 피해를 입고 있다.

사회적 안전시스템의 부족으로 양을 하게 피해자가 된 사람, 즉, '범죄 피해자'는 국가의 보호자로서의 미비로 인하여 오늘도 와롭게 눈물을 흘리는 말 그대로 '피해자'가 되고 있다. 범죄를 당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범죄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 가까이에 있다. 이제 우리 사회도 형사재판을 통해서 범죄자가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중요겠지만, 범죄의 한 쪽에서 서 있는 피해자의 행복추구권 등 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인 피해자지원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무법인 지산 변호사>

의 한 기업에게 창원과 원주에 또 다른 형제기업이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 참여기업 대부분이 아직 중소기업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은 새로운 기업들이 이전해오고 창업해 발전해 왔지만 클러스터를 한단계 도약하도록 이를 선도기업이 없는 것도 약점이다. 보다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과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다.

술집에 '개가 사나우면 술이 시어진다'는 의미의 구맹주산(狗猛酒酸)이란 말이 있다. 중국 송나라 시절 양조기술이 뛰어난 장씨가 운영하는 주막은 항상 그 양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고 친절하게 술을 팔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손님이 줄자 그 이유를 알아본 장씨는 키우던 개가 워낙 사나워 손님들의 밭길이 뜯해지 고 술이 시어지게 된 사실을 알게 됐다.

공기관의 공복으로서 고객인 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사나운 역할을 했던 적은 없는지 스스로 반성해본다. 항상 내 아버지, 형님의 기업이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어려운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이 필자에게 주어진 소임일 것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고 전체 도색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나중에 그 상황이 닥쳤을 때는 똑같은 덤터기를 쓰는 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꼼꼼이 생각해 보니 보험 할증기준이 높아졌는데 이게 엉뚱하게 자동차 정비업체들의 과잉수리를 부추기며 그들의 배반 불리운 것 같다. 그리고 좀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런 과잉수리가 곧바로 전체 운전자들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앞으로 이런 홉포를 막으려면 수리 전에 카센터에서 사전 견적서를 보험회사에도 제

출하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 모두가 보험금은 주인 없는 돈이라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과잉정비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운전자들만 덤터기를 쓰는 것 아닌가.

▲이학섭·광주시 광산구 양산동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http://www.kwangju.co.kr)

## 시설

## 국회 파행 지역현안예산 매몰되선 안돼

내년도 광주·전남지역 현안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또다시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를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로 내년 정부예산에 대한 국회 예산이 신규로 증액됐다.

여야는 이미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월을 넘겼다. 게다가 정기국회 회기인 9월까지 합의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홍우여·한나라당 원내대표는 4일 '민주당의 의지가 없다'는 정 안면되면 단독처리라도 해야 하는데 큰 일이다"고 밝혔다. 상황에 따라 강행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문제는 여당 단독으로 처리될 경우 국회 상임위에서 어렵게 살려낸 지역 현안예산이 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3년 연속 이어진 여당의 예산안 날치기 처리로 현안사업비가 최소 5000억 원 이상 증발했다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집계가 이를 반증해준다.

민주당은 예산안 심의와 FTA 투쟁을 분리하는 게 옳다. 자칫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로 예산이 누락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이 입을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서두르자 말고 예산안을 합의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에 등원 명분을 주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고 또다시 날치기 처리를 강행할 경우 엄청난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 돈벌이 수단 변질된 어린이집 불법 거래

어려워지자 인기증과 원생에 대해 젊을 매개 사고 파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당국이 적발한 건수는 찾기 어렵다.

고액의 권리금을 내고 거래된 어린이집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갖가지 불법 운영을 해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 아기에게 현장학습비를 받고, 교사나 아동을 하위로 등록해 자원금을 챙기는가 하면 부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동기기나 지난 음식을 제공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교육의 질이나 서비스 등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빠져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불법이라는 잣대에 안주할 게 아니라 어린이집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안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경찰도 이번 단속을 계기로 최근 대표나 시설장 변경 등 부적절한 거래가 의심되는 다른 어린이집에 전통부의 집계가 이를 반증해준다.

지난 2006년 어린이집 설립이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바뀌면서 신규 설립이

## 無等鼓

조선시대에는 무과의 시재(試才)와 군사들의 훈련과 목이 되기도 했으나 문종무비(文尊武卑) 사조가 팽배해지면서 양반계급으로부터 배척당하고 기층 민중들에 의해 민족들이 전승했다.

한민족의 역사와 민족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택건은 고수에 의해 결코 상대방을 해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거나 하는 기술을 쓴다. 배려의 정신이다.

덕분에 택건은 국내에서 무술로는 유일하게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1983년)됐다. 나아가 지난달에는 중국의 궁후를 제치고 전통무예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태권도는 택건을 계승해 현대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역사가 정확히 정립되지 않아 의견이 분분하다. 기술과 경기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최근 (사)한국무예포럼은 '태권도와 택건의 상관분석'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후세에 깊이 이어지게 하려면 경쟁도 좋지만 상생의 길을 찾는 게 먼저다. /정후식 정치부장 who@

## 기고



손성운

## 클러스터, 중소기업 성장의 해법

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훗날 우리 경제를 이끌어야 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그런 면에서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은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할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대학과 연구소, 지원기관을 중소기업과 연계시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의미있는 해법이다. 산업 단위를 중심으로 업종별·기술별 소규모 산업 협력체인 미니클러스터를 통해 기술개발, 마케팅, 판로 개척 등 중소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는 다양한 협력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 군산, 대구, 익산 등을 비롯한 호남 지역의 활동도 활발하다. 내년에는 국내 최대 석유화학기지인 여수단지에도 확대될 계획이다. 실제 광주 클러스터 사업은 산업기반에 취약했던 광주지역을 일약 '빛의 산업 도시'로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세계적으로 성장해가는 광산업의 중심지로서 생산과 수출, 고용창출도 최근 몇 년간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성과는 광활한 만하다. 사업이 시작된 5년 전에 비해 광기업체 수는 8배, 고용은 5배, 생산과 수출 규모도 10배 이상 성장했다. 기업이 중심이 된 6개 미니클러스터와 대학·전문가·지원기관이 모여 유기적인 네트워킹 활동과 정보공유 등 창의적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 스스로 새로운 기술개발과 협업하는 모습은 여타 지원사업과는 차별성을 지닌다. 이제는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갖고 서로를 돋는 혁신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른바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해법인 셈이다.

기업으로서는 기술력을 갖추고 경쟁력 있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 뿐더러 부족한 마케팅, 디자인, 판로개척 등에서도 진일보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응용분야가 많은 광산업의 특성상 전국 각지의 다른 업종과도 기술 교류도 할 수 있으니 기업에겐 새로운 기회도 생겨나는 것이다. 이를테면 광주

의 한 기업에게 창원과 원주에 또 다른 형제기업이 생기는 것이다.